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을 갖추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선물할 담례 품목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다.

시는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17개 품목에 62개 상품을 선정해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담례품은 한우,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물 8개 품목과 생화차, 한과, 떡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존에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담례 품목으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정읍시청 기획예산실(☎530-5068)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봉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체로 담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다.

법률에서 정한 금지 품목(현금, 귀금속 등)은 제외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감사 위원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고정윤)는 30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실시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 감사 위원은 박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결산 감사는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과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정윤 의장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통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정읍시의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부안군 등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사회 개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이 30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화상회의를 통한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에 신규로 참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를 포함,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주요안건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의 행정협의회 전환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국원전동맹 지자체

와 지역 국회의원의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5월부터 원전동맹 23개 회원도시 508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8월경 국회로 주민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었던 전국원전동맹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력·조정 기관으로의 역할

을 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되어도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도개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의 세원 발굴, 방사능방재 및 시설 방호 등의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이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산광역시 7개 기초지자체의 전국원전동맹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창조경영 2023 자치행정경영부문 선정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자치행정 경영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대전환 등 끊임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창조적이고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확보해 가고 있는 기관과 기업인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1시 부문별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정읍시장에 취임한 이 시장은 소통행정 강화, 과감한 인사 혁신과 불합리한 규제타파, 시정 전반에 걸친 공정하고 투명한 시



시스템을 구축해가며 신뢰받는 투명 행정 구현과 청렴한 정읍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했고, 새로 신설한 시민소통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연구와 결정 공간은 물론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시 자체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가고 있고 건설공사와 용역, 자재(물품) 평가위원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공정한 계약을 실현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테마가 있는 사계절 직거래장터 본격 개장

문화관광자원, 특화 먹거리 연계 장터... 3월 벚꽃축제~10월 모양성제까지 연중 운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테마가 있는 사계절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직거래장터는 고창군의 다양한 축제·행사기간에 문화관광자원, 특화 먹거리와 연계한 장터로 3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월 고창모양성제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벚꽃축제 기간인 3월31일부터 3일간 석정온천지구 일대에서 첫

선을 보인다.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쌀, 고구마, 복분자, 천일염을 비롯해 수박, 멜론, 블루베리 등 계절과일과 공예품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장터 한쪽에서는 떡메치기 행사를 통한 즉석에서 만든 인절미떡 무료 시식행사를 펼쳐 장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고창군 흥종동 농촌활력과장은 "직거래장터는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농특산물 우수성도 홍보하는 좋은 기회다"면서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를 맞아 개장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창조경영 2023 창조브랜드 부문 수상

고창군이 고품격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에서 지자체 브랜드 부문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은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후원한다. 혁신적인 발전과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한 우수 경영사례와 브랜드 전략을 선정했다.

고창군은 '관광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를 핵심 국정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선포,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고창군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창의 주요 관광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연계한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알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천 분수 3개소 야간경관조명 설치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정읍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다.



'정읍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분수 3개소의 노즐을 교체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분수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시민들이 낮에는 시원함을 밤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 3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분수 가동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수 작동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간 분수 등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읍천을 정읍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남초, 교육공동체 생활 협약 선포식 개최

부안남초등학교(교장 정한상)는 지난 29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 생활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남초는 2022년 4월부터 생활 협약 제정을 통해 학생은 친구와 학교를 사랑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내용,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고 관심과 대화로 양육하기 위한 내용,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장의 교육을

위한 내용이다. 생활 협약은 늘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과 복도에 아르카드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 협약 내용으로 학생은 별명과 욕설 등 나쁜 말 하지 않기 등 선정, 학부모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교사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기, 대화와 소통하기 등 생활 협약으로 결정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